

행복한 금요 편지

일본으로 시집가는 딸에게

정순영¹⁾

전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

우란아! 내가 오늘 기어코 동경으로 떠났구나.

지난 1월 말 결혼식을 마치고 준비 차 바로 양군과 함께 떠나지 못하고 이런저런 준비를 하느라고 시간을 지체하면서 '아빠는 내가 떠나면 외로워 할텐데...' 하면서 한껏 애교를 부리더니 결국 떠나게 되었구나. 요즘 세계 어디로 가더라도 언제라도 연락하고 싶으면 폰으로 연락하고 며칠이면 집에도 올 수 있는 세상이 되었지만 키운 자식이 새로운 가정을 이루려고 떠나는 것은 역시 공간적이고 시간적 개념이 아니고 심적인 거리와 이별의 감정임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겠구나. 오늘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네 방을 둘러보니 아직 가져가야 할 짐을 쌓아놓고 다시 온다고는 했지만 역시 네가 이제 우리의 품을 떠났다는 생각이 뇌리를 도는구나.

솔직히 나는 일본말은 고사하고 일본에서 살려면 꼭 필요한 기초한자도 잘 모르는 네가 참으로 용감하게도 양군과 일본에서 살겠다니 걱정이 많이 된다. 아빠가 워싱턴에서 주재관으로 근무할 때 네 중학과정을 모두 그곳에서 했으니 굳이 외국에 살 요량이라면 신랑감을 영어권에서 구해야 할 터인 데 동경대 유학생인 양군을 택한 것을 보고 운명이란 별난 것임에 분명하구나. 그런데 우란아! 일본이란 나라는 네가 모르는 만큼 준비할 것도 생각할 것도 무척 많은 나라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할 게다. 솔직히 현재 네가 알고 있는 수준이란 독도가 자기 땅으로 또는 위안부 등 역사적 사실의 왜곡을 일삼는 나쁜 국가쯤일지 모르겠구나. 그러나 일본은 옛날부터 우리로부터 문화적으로 은혜를 입은 나라로써 조선조 양반들로부터 한심하게 상놈취급을 당한 일본국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할 미래국가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일제시대 윤동주가 다닌 교토 한복판 동대사 교정에 세워져 있는 유명한 '향수'의 시인 정지용의 또 다

1) 행복편지를 기고해 주신 정순영님은 전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을 직임하셨습니다.

른 시비(제목은 기억나지 않구나)를 읽어 보면 그의 청록파 제자인 조지훈의 '낙동강 칠백리'와 박목월의 '나그네'에 나오는 '멀리 강너머에 비친 노을과 어디선가 술익은 냄 새...' 라는 핵심 주제가 아주 명료하게 선작(先作)되어 있는 것을 보면 놀랄 것이다. 요컨대 근대시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 분야의 문화선도국인 일본으로부터의 영향을 인정해야 함은 물론 그 수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괜한 감정적 역사유물을 힘에 겹게 지고 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묘하게도 과거 조선시대 최고의 인문학과 국정운영의 아이콘으로 지금도 한국의 많은 학자들이 숭앙하는 추사 김정희와 다산 정약용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중국에 편향된 사대주의자인지 생각해 보면 일본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지금도 우리의 역사적 감정 속에 은연중 남아있는 대중국관과 대일본관의 균형의 결여에 기인함이 분명하다.

솔직히 최근 한류의 첨병인 '소녀시대'도 일본이 창작한 소녀가수단의 모방임을 그리고 '삼성'도 일본 소니社를 따라잡은 것이지만 전자인 대중문화는 결코 고급문화와 선 도문화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논외로 친다면 후자인 소니조차 구각을 벗어던지고 창조기업으로 탈바꿈하면서 다시 선발주자로 나서는 양상만 하더라도 사태가 심상 치 않단다. 과거 유럽을 배우면서 따라잡은 일본도 또 우리를 턱 밑까지 따라온 중국 도 새로운 창작의 기세가 드센데 정작 우리는 조야가 모두 말로만 하는 창작이어서 더욱 우려스럽구나.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할 것은 인구절벽을 겪고 더 큰 위기에 대처해 나가는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 정치체제를 포함한 모든 분야가 같은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이웃이라는 것이다. 이 점을 모르면 노벨 상을 수십명을 배출한 이 나라의 진면목을 모르고 미움과 갈등의 대상으로만 보면서 정치인들이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슬로건에 애꿎은 국민들만 놀아나는 꼴이 되는 거란 다. 결론은 우리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 하고 일본은 매우 소중한 배 움의 대상국가란 것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그럼에도 너희들이 사는 곳이 어디든 간에 인생이 온통 너희들을 중심으로 어 느 철학자가 말했듯이 결혼을 계기로 무대에 올라간 너희들은 이제 주인공이 되었고 너희 부모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대 뒤로 또는 앞과 옆으로 내려와서 너희 들을 쳐다보는 관객의 일부에 지나지 않게 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된 것이지. 그리고 너희들은 헤르만 헤세가 말한 '청춘은 아름다워라!'란 주연 배우들이 되었으니 인생의 행복행이 모두 너희들의 몫이 되는 거란다. 부디 하루하루를 보람있게 지내다 보면 어 느듯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미래가 올 것이니 자신있게 살아가기 바란다. 일본의 가옥 은 어디든지 온돌이 없는 구조이니 감기 조심하거라.

2016년 3월 말 아빠가

한선행복포럼에서는 '행복한 금요편지'이란 에세이를 통해 행복의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당신의 소중한 원고를 기다리겠습니다. 행복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